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문화에서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녀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한 결과, 직업군인, 건설현장감독, 중장비기사, 소방공무원, 그리고 기관사 등이 가장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되었으며, 간호사, 유치원교사, 비서, 전화교환원, 그리고 에어로빅강사 등이 가장 여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되었다.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해볼 때 여학생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을 덜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적 직업을 더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말해준다. 조사대상자를 성역할유형에 따라서 "남성적"유형과 "여성적"유형으로 구분하여 두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적"유형에서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적"유형의 학생은 "남성적"유형의 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적 직업을 덜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녀 각 성별에서 "남성적"유형과 "여성적"유형으로 구분하여 두 유형의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를 합해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적 직업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남녀로 구분해서 분석했을 때와 "남성적", "여성적"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일부 직업에서 큰 점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단점과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업화 사회의 발전과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력 가운데 여성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0.7%이다(조은과 조순경, 1994). 이는 80년대 말 미국의 여성 노동력 비율인 44%와 비교했

을 때 작지 않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많은 여성들이 임금수준이 낮고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Barett, 1987). 조은과 조순경(1994)이 국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인력은 전체의 24%인데, 그 가운데 전문직은 4.5%, 그리고 관리-행정직은 0.5%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고정관념(sex stereotype)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hinar, 1975).

*.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의 초고를 읽어 주신 유태용 교수와 김성일 교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보다 나은 논문이 되도록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 광운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속.

즉,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직업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공, 배관공 및 엔지니어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남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며, 간호사, 영양사 및 국민학교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여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Shinar, 1975).

White, Kruczek, Brown 및 White(1989)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스트롱흥미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 Strong, Hansen & Campbell, 1985)에 나오는 106개 직업을 얼마나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을 갖는 직업으로 지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여전히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과거의 연구결과(Shinar, 1975)와 비교할 때 이러한 성고정관념의 정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명이 동일한 19개 비교대상 직업 가운데 15개 직업에서 대학생의 성고정관념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전기공, 엔지니어 및 건축사와 같이 전통적인 남성적 직업을 덜 남성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했으며, 간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적 직업을 덜 여성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은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주변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의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일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재조사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

문화권에서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특히 여성에 대한)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한국문화권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추가로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달리 지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녀의 성별과는 별도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유형(sex-role type)에 따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성 중에서 모두가 다 남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여성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모두가 다 여성적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남성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Bem, 1975;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조사대상자를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으로 분류해서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남녀로 분류해 분석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행해진 White 등(198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미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White 등(1989)이 조사대상으로 한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았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성과 성역할의식에서의 차이에 따른 결과에 관해 아무런 가설도 설정하지 않았다. 단지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특색을 고려할 때,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hite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더 강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절차

K대학에서 95년 1학기에 심리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과 산업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21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7세였고,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55명(73%), 2학년이 2명(1%), 3학년이 27명(13%), 그리고 4학년이 28명(13%)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보면 인문계 및 사회계열 전공자가 96명(45%), 이학계열 전공자가 42명(20%), 그리고 공학계열 전공자가 74명(35%)이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137명(65%), 여학생이 75명(35%)이었다.

자료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 담당 교수가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답하게 하였다.

도구

직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스트롱홍미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와 Holland(1985)의 자기탐색검사(Self Directed Search:SDS)에서 나타나는 직업명을 토대로 연구자가 한국문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리쿠르트지에서 대학생의 직업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졸취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월간리쿠르트, 1995)를 참조하여 일부 직업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직업명 목록을 다섯명의 대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이 각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를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자신이 아는 직업이 있으면 공란에 적어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100개의 직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직업을 평정

했다. 먼저 각 직업을 읽고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요 성격 특성이 얼마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지를 Likert식의 7점 척도(1: 주로 남성적인 경우, 4: 중립적이거나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 7: 주로 여성적인 경우)를 이용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동일한 직업목록을 보고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남녀를 합한 비율이 100%가 되도록, 적어놓도록 하였다.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해당직업은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해당직업은 여성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남녀 비율이 동일한 경우는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역할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득란(1992)이 개발한 5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각 20개의 문항과 15개의 중립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의 예를 들면 과묵하다, 박력이 있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결단력이 있다 등이 있으며, 여성성 문항으로는 섬세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알뜰하다, 감상적이다 등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7점 척도상에 답하였다. 김득란의 연구에서 보고된 각 하위검사의 내적합치도계수인 Cronbach Alpha는 남성성이 0.94, 여성성이 0.92, 그리고 중립문항이 0.84였다.

분석

각 직업의 평균점수를 구해서 각 직업이 어느 정도나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지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역할유형은 이들의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Spence, Helmreich 및 Stapp(1975)이 제시한 중

양치분할법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에서의 평균치를 구하고, 이 평균치들의 중앙치를 계산했다. 남성성 문항 평균치들의 중앙치는 4.425고, 여성성 문항 평균치들의 중앙치는 4.50였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남성성 문항에서 중앙치인 4.425 이상이고 여성성 문항에서 중앙치인 4.50 미만의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남성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남성성 문항에서 중앙치인 4.425 미만인 값을 얻고 여성성 문항에서 중앙치인 4.50 이상의 값을 얻은 사람들을 “여성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적” 유형으로 분류된 학생은 42명(남학생: 30명, 여학생: 12명)이었고 “여성적” 유형으로 분류된 학생은 43(남학생: 27명, 여학생: 16명)명이었다. 나머지 127명의 학생들은 성역할유형과 관련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얼마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지를 평가한 결과는 표 1에 평균 점수의 크기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모든 직업들의 평균은 3.47로서 다소 남성적이었으며, 전체 100개 직업 가운데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된 것은(4.0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직업) 68개로 전체의 68%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가장 남성적인 직업은 직업군인(평균 = 1.47)이었고, 다음은 건설현장감독(평균 = 1.50), 중장비기사(평균 = 1.53), 소방공무원(평균 = 1.72), 그리고 기관사(평균 = 1.7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여성적인 직업은 간호사(평균 = 6.40)였으며, 다음은 유치원교사(평균 = 6.27), 비서(평균 = 6.15), 전화교환원(평균 = 6.03),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평균 = 5.96) 등의 순이었다. 가장 중립적인

직업은 시인(평균 = 4.02)이었고, 이외에도 성우(평균 = 4.03), 7급 및 9급 공무원(평균 = 3.92), 그리고 텔런트/연극/영화배우(평균 = 4.08) 등이 중립적인 특성이 강한 직업이었다.

동일한 직업목록을 보고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적게 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표 1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먼저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응답한 직업은 76개로 전체의 76%였다.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직업은 중장비기사(남성: 91.68%)였는데, 이 직업은 표 1에서는 세번째로 가장 남성적인 직업이었다. 또한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 21개 가운데 20개는 표 1에서도 가장 남성적인 직업 20개에 속하는 직업이었다. 반면에 가장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유치원교사(여성: 88.39%)였는데, 이 직업은 표 1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여성적인 직업이었다. 이외에 가장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 21개 가운데 모두가 표 1에서도 가장 여성적인 직업 21개에 속하는 직업이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각 직업이 갖는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각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에 대한 평가와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두 평가 방식에 의한 결과가 크게 일치하므로 이 후의 분석은 표 1에서 사용한 7점 척도상의 점수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남녀간의 차이에 따른 비교

각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남녀별로 가장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을 가진 직업 10개를 선정하여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직업군인을 가장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했고, 다음은 중

표 1. 각 직업의 남성적-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가

직업	평균	표준편차	직업	평균	표준편차
직업군인	1.47	0.86	컴퓨터프로그래머	3.25	1.09
건설현장감독	1.50	0.95	대학교수	3.32	0.95
중장비기사	1.53	0.83	외환딜러	3.33	1.43
소방공무원	1.72	0.94	인류학자	3.36	1.08
기관사	1.75	0.99	평론가	3.39	1.10
전기공	1.77	0.89	조경사	3.42	1.30
자동차정비공	1.81	0.84	사진작가	3.42	1.08
목수	1.82	1.14	사회사업가	3.47	1.27
조종사	1.83	0.96	공장직공	3.50	1.43
버스운전사	1.90	0.99	사회학자	3.54	1.14
미장이	2.01	1.33	만화가	3.56	1.11
엔지니어	2.07	1.09	조각가	3.67	1.06
경마기수	2.14	1.21	대기업홍보실직원	3.67	1.32
경찰공무원	2.15	0.98	고등학교교사	3.70	1.08
택시운전사	2.17	0.98	작곡가	3.71	1.03
정치가	2.17	0.97	심리학자	3.78	1.08
판, 검사	2.23	1.11	화가	3.83	1.01
영화감독	2.24	0.96	7급 및 9급공무원	3.92	1.15
중소기업경영자	2.29	0.95	시인	4.02	1.05
농부	2.41	1.17	성우	4.03	0.69
호텔지배인	2.42	1.22	텔런트/연극/영화배우	4.08	0.92
환경미화원	2.42	1.36	중학교교사	4.12	0.91
건축사	2.44	1.02	작가	4.18	0.88
한의사	2.55	1.12	성악가	4.19	0.91
외교관	2.55	1.04	은행원	4.23	1.10
고급공무원	2.57	1.11	방송국아나운서	4.24	1.04
물리학자	2.61	1.13	음악가	4.29	0.85
대기업임원	2.61	1.17	교직원	4.29	0.96
천문학자	2.65	1.15	통역사	4.45	0.96
교장(감)	2.72	1.18	요리사	4.49	1.32
세무사	2.76	1.10	보험회사영업사원	4.53	1.51
공인중개사	2.77	1.20	극작가 및 방송작가	4.57	1.14
소규모자영업	2.82	1.12	항공기승무원	4.63	1.51
방송국 PD	2.83	1.13	약사	4.83	1.08
대기업 기획실직원	2.84	1.04	인테리어디자이너	4.85	1.18
공인회계사	2.90	1.06	분장사	5.13	1.21
치과 의사	2.95	1.08	도서관사서	5.16	1.10
지질학자	2.96	1.08	은행창구직원	5.19	1.43
변호사	2.96	1.04	관광가이드	5.25	1.13
의사	2.98	0.99	의상디자이너	5.42	1.05
기상학자	2.99	1.08	국민학교교사	5.44	1.09
화학자	3.00	1.22	모델	5.50	1.22
광고대행사 PD	3.00	1.18	미용사	5.68	1.19
신문사기자	3.06	1.08	경리사원	5.84	1.07
수익사	3.09	1.20	영양사	5.95	1.10
성직자	3.09	1.32	에어로빅강사	5.96	1.10
운동선수	3.12	1.05	전화교환원	6.03	1.01
증권회사직원	3.16	1.06	비서	6.15	0.92
천문학자	3.16	1.15	유치원교사	6.27	0.86
방송국기자	3.24	1.02	간호사	6.30	1.03

표 2. 각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비율에 대한 평가

직업	남성	여성	직업	남성	여성
중장비기사	91.68	8.32	수학자	66.36	33.64
기관사	90.97	9.03	평론가	66.26	33.74
직업군인	90.64	9.36	증권회사직원	65.77	34.23
소방공무원	89.79	10.21	방송국기자	65.44	34.56
버스운전사	89.57	10.43	인류학자	64.77	35.23
건설현장감독	89.51	10.49	사진작가	62.73	37.27
전기공	89.45	10.55	사회학자	62.24	37.76
목수	89.35	10.65	조각가	62.08	37.92
조종사	88.92	11.08	작곡가	61.63	38.37
경마기수	88.43	11.57	대기업 홍보실직원	60.98	39.02
자동차정비공	88.00	12.00	사회사업가	60.60	39.40
미장이	87.53	12.47	만화가	59.85	40.15
택시운전사	86.23	13.77	운동선수	59.46	40.54
정치가	85.14	14.86	고등학교교사	58.22	41.78
환경미화원	83.51	16.49	심리학자	56.84	43.16
경찰공무원	82.83	17.17	7급 및 9급공무원	56.78	43.22
엔지니어	82.79	17.21	시인	55.77	44.23
판.검사	82.40	17.60	화가	55.57	44.43
영화감독	82.38	17.62	공장직공	53.18	46.82
호텔지배인	80.99	19.01	음악가	51.88	48.12
중소기업경영자	80.40	19.06	방송국 아나운서	51.82	47.95
대기업임원	80.32	19.68	작가	51.11	48.89
의료관	78.58	21.42	성우	50.62	49.38
한의사	78.46	21.54	중학교교사	50.35	49.65
고급공무원	78.45	21.55	성악가	50.33	49.67
건축사	78.22	21.78	은행원	50.11	49.89
교장(감)	78.09	21.91	교직원	50.00	50.00
공인중개사	77.33	22.67	통역사	49.48	50.52
천문학자	75.86	24.14	텔레비전/연극/영화배우	49.38	50.62
물리학자	75.04	24.96	극작가 및 방송작가	47.01	52.99
방송국 PD	73.58	26.42	요리사	46.94	53.06
공인회계사	72.47	27.53	약사	44.08	55.92
소규모자영업	71.77	28.23	인테리어디자이너	42.48	57.52
농부	71.65	28.35	항공기승무원	39.89	60.11
기상학자	71.59	28.41	보험회사영업사원	39.68	60.32
변호사	71.39	28.61	분장사	35.95	64.05
의사	71.11	28.89	모델	34.43	65.57
화학자	71.02	28.98	의상디자이너	34.35	65.65
대기업 기획실직원	70.97	29.08	도서판사서	34.11	65.89
치과 의사	70.42	29.58	관광가이드	32.97	67.03
세무사	70.05	29.95	국민학교교사	31.56	68.44
지질학자	69.85	30.15	은행창구직원	28.82	71.18
컴퓨터프로그래머	69.62	30.38	미용사	26.87	73.13
수의사	68.89	31.11	영양사	20.80	79.20
광고대행사 PD	68.84	31.16	경리사원	20.38	78.62
조경사	67.76	32.24	에어로빅강사	19.90	80.10
대학교수	67.72	32.28	비서	19.67	80.33
성직자	67.39	32.61	간호사	15.00	85.00
외환딜러	67.25	32.75	전화교환원	14.76	85.45
신문사기자	66.52	33.48	유치원교사	11.61	88.39

장비기사, 건설현장감독, 기관사, 전기공, 목수, 소방공무원, 조종사, 자동차정비공, 버스운전사의 순으로 지각했다. 여학생은 건설현장감독을 가장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했으며, 다음은 직업군인, 중장비기사, 소방공무원, 자동차정비공, 버스운전사, 전기공, 조종사, 기관사, 목수의 순이었다. 남학생이 지각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순서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녀 모두 가장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한 10개의 직업은 동일했다.

여성적인 직업의 지각에 있어서, 남학생은 간호사를 가장 여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했고 다음은 유치원교사, 비서, 전화교환원, 영양사, 에어로빅강사, 경리사원, 미용사, 모델, 의상디자이너의 순이었다. 여학생이 지각한 결과도 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은 유치원교사를 가장 여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했으며, 다음은 간호사, 비서, 전화교환원, 에어로빅강사, 영양사, 경리사원, 국민학교교사, 미용사, 모델의 순이었다.

다음은 각 직업별 평균점수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지각한 직업들의 평균은 3.45였고, 여학생들이 지각한 평균은 3.52였다. 전체 100개 직업 가운데 21개 직업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흥미로운 결과는 남성적(예, 판, 검사, 호텔지배인, 건축사 등) 또는 여성적(예, 국민학교 교사, 극작가 및 방송작가 등) 특성을 갖는 직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업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표 3에서 판, 검사, 호텔지배인, 변호사, 건축사 등)은 덜 남

표 3.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간의 차이

직업	남성(n=137)	여성(n=75)	t (df = 210)
판, 검사	2.08	2.51	-2.72*
호텔지배인	2.26	2.69	-2.49*
건축사	2.34	2.63	-1.97*
변호사	2.81	3.24	-2.93**
증권회사직원	3.04	3.37	-2.24*
대학교수	3.21	3.52	-2.26*
사회사업가	3.27	3.83	-3.10**
수학자	3.28	2.93	2.10*
고등학교 교사	3.37	4.29	-6.51***
만화가	3.42	3.83	-2.60**
조경사	3.63	3.04	3.22**
작곡가	3.81	3.52	1.97*
중학교 교사	3.97	4.40	-3.36**
작가	4.07	4.40	-2.70**
성악가	4.07	4.40	-2.54*
방송국 아나운서	4.13	4.43	-1.98*
교직원	4.16	4.54	-2.86**
통역사	4.29	4.73	-3.26**
극작가 및 방송작가	4.38	4.88	-3.04**
국민학교 교사	5.31	5.67	-2.27*
비서	6.25	5.96	2.20*

주. * < .05 ** < .01 *** < .001

성적인 것으로, 여성적 직업(표 3에서 국민학교교사, 극작가 및 방송작가, 통역사 등)은 더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말해준다. 예외로,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직업은 비서, 조경사 및 수학자 등이었다.

성역할유형의 차이에 따른 비교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성역할유형에 따라서 직업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역할검사점수를 토대로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연구방법을 참조할 것). 표 4에서 보듯이 전체 100개의 직업 가운데 단지 5개 직업에서만 두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위의 남녀간의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 가운데 표 4의 다섯 가지 직업과 중복되는 직업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의 구분은 성역할유형에 따른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으로의 구분과 합치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섯 가지 직업 모두에서 “여성적”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나타났다. 이는 “여성적” 유

형의 학생이 “남성적” 유형의 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표 4에서 환경미화원,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컴퓨터프로그래머)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적 직업(표 4에서 방송국 아나운서)을 덜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남녀간의 비교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서 더 높았던 결과와 대조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녀 각 성별에서 성역할유형이 다름에 따라 각 직업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남학생 가운데 “남성적” 유형에 속하는 30명과 “여성적” 유형에 속하는 27명 사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모두 11개의 직업에서 두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은행원과 전화교환원을 제외하고, 남학생 가운데 “여성적” 유형에 속하는 학생의 점수가 “남성적” 유형에 속하는 학생의 점수보다 낮았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직업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적” 유형의 남학생이 남성적 직업(표 5에서 판, 검사, 외교관, 고급공무원 등)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적 직업(표 5에서 방송국 아나운서)을 덜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보여준다.

표 4.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간의 차이

직업	남성적유형(n=42)	여성적유형(n=43)	t (df = 83)
환경미화원	2.74	2.09	2.09*
공인회계사	3.21	2.65	2.63**
공인중개사	3.29	2.33	3.80***
컴퓨터프로그래머	3.64	2.98	2.61*
방송국 아나운서	4.58	4.02	2.37*

주. * < .05 ** < .01 *** < .001

표 5.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 평가에서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간의 차이

직업	남성적유형(n=30)	여성적유형(n=27)	t (df = 55)
판, 검사	2.23	1.70	2.12*
외교관	2.73	2.15	2.06*
고급공무원	2.73	2.15	2.06*
공인회계사	3.27	2.52	2.64*
공인중개사	3.30	2.15	3.57**
컴퓨터프로그래머	3.60	2.85	2.17*
고등학교교사	3.63	3.07	2.04*
은행원	3.73	4.44	-2.30*
사진작가	3.90	3.22	2.28*
방송국아나운서	4.52	3.85	2.12*
전화교환원	5.96	6.52	-2.51*

주. * < .05 ** < .01

표 6.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 평가에서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간의 차이

직업	남성적유형(n=12)	여성적유형(n=16)	t (df = 26)
조종사	2.33	1.68	2.03*
택시운전사	2.50	1.88	2.04*

주. * < .05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학생 가운데 "남성적" 유형에 속하는 12명과 "여성적" 유형에 속하는 16명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듯이, 2개의 직업에서만 "여성적" 유형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두 직업 모두 남성적 특성을 갖는 직업으로서, "여성적"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직업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문화권과의 비교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White 등(1989)이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White 등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자는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채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대학생이었고, 평균연령은 20세였으며, 대부분이 1학년과 2학년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와 동일한 7점 척도를 사용해서 각 직업(스트롱홍미검사

표7. 직업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 평가에서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간의 차이

한국대학생		미국대학생		t (df = 300)
직업	평균	직업	평균	
전기공	1.77	Electrician	1.99	-1.92*
목수	1.82	Carpenter	1.90	-0.57
버스운전사	1.90	Bus driver	3.31	-10.98***
엔지니어	2.07	Engineer	2.35	-2.09*
경찰공무원	2.15	Police officer	2.43	-2.27*
농부	2.41	Farmer	1.89	3.63***
건축사	2.44	Architect	2.73	-2.29*
물리학자	2.61	Physicist	3.01	-2.84**
교장(감)	2.72	School administrator	3.23	-3.70***
공인회계사	2.90	Accountant	3.39	-3.81***
치과의사	2.95	Dentist	2.73	1.62
지질학자	2.96	Geologist	3.16	-1.48
변호사	2.96	Lawyer	3.07	-0.86
화학자	3.00	Chemist	3.06	-0.42
수의사	3.09	Veterinarian	3.28	-1.31
성직자	3.09	Minister	1.90	7.25***
컴퓨터프로그래머	3.25	Computer programmer	3.44	-1.47
대학교수	3.32	College professor	3.58	-2.31*
사진작가	3.42	Photographer	3.71	-2.38**
사회사업가	3.47	Social worker	5.22	-11.65***
사회학자	3.54	Sociologist	4.00	-3.45***
심리학자	3.78	Psychologist	3.72	0.47
음악가	4.29	Musician	3.87	3.96***
보험회사영업사원	4.53	Life insurance agent	3.31	7.09***
항공기승무원	4.63	Flight attendant	5.86	-7.01***
약사	4.83	Pharmacist	3.30	11.51***
인테리어디자이너	4.85	Interior decorator	5.82	-6.75***
도서관사서	5.16	Librarian	5.86	-5.10***
국민학교교사	5.44	Elementary teacher	5.46	-0.15
영양사	5.94	Dietitian	5.31	4.54***
비서	6.15	Secretary	6.23	-0.67
간호사	6.30	Registered nurse	5.99	2.40**

주. * < .05 ** < .01 *** < .001

에 나오는 직업)을 평가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직업의 수는 모두 106개였는데, 이 직업들의 7점 척도상에서의 평균은 3.71이었고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된 직업은 72개인 68%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 사용된 100개 직업들의 평균은 3.47이었고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된 직업수는 68%이었다. 따라서 White 등의 연구가 실시된 것이 1989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연구와 약 6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연구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두 연구결

과를 비교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 가운데 White 등이 사용한 직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직업수는 32개였으며, 두 문화권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점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으로 남성적 직업의 경우 한국대학생에서의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여성적 직업의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은 미국대학생에 비해서 대부분의 남성적 직업(표 7에서 전기공, 버스운전사, 엔지니어 및 경찰공무원 등)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했다. 예외는 농부와 성직자였다. 그러나 여성적 직업의 경우, 도서관사서, 인테리어디자이너, 항공기승무원 등은 덜 여성적인 직업으로 지각했으나 음악가, 보험회사영업사원, 약사, 영양사 및 간호사 등은 더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했다.

이 결과는 미국문화권에 비해 한국문화권에서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더 강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성적 직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적 직업의 경우 간호사나 영양사와 같이 일부 여성적 특성이 강한 직업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문화에서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된 직업군인, 건설현장감독, 중장비기사, 소방공무원 및 기관사 등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강하고 힘있는 특

성을 지니는 직업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장 여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된 간호사, 유치원교사, 비서 및 전화교환원 등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부드러운 특성을 지니는 직업으로 볼 수 있다.

전체 100개 직업 가운데 평균점수가 3.0이하의 남성적 직업이 43개이고, 5.0이상의 여성적 직업이 15개나 된 것은 한국문화에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강함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대학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두 문화에서 얻어진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직업에는 사회사업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대학생이 약간 남성적(3.47) 직업으로 지각한 반면에 미국대학생은 상당히 여성적(5.22) 직업으로 지각했다. 이는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이 아직 한국대학생에게 명확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란 막연히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돕는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사업가를 다소 남성적 직업으로 지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남녀간의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을 덜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한데는 그만큼 여성이 남성적 직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또는 진출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적 직업을 더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한 이유는 한국과 같이 성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몫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직업의 대부분은 다소 중립적인 특성에 가까운 직업이라는 점이다. 전형적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직업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유형의 구분에서 "여성적"유형의 학생은 "남성적"유형의 학생보다 남성적 직업을 더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섬세한 특성을 갖는 "여성적"유형의 사람에게는 "남성적"유형의 사람에 비해서 남성적 특성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더 남성적인 직업으로 지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적 특성이 돋보이는 직업은 "여성적"유형의 사람에게는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100개의 직업을 선정해서 결과를 얻었다. 국내에서는 스트롱홍미검사와 같이 많은 직업이 나오는 검사가 없었고, 또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최근의 직업을 포함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저자 임의대로 국외의 검사와 일부 국내 자료를 토대로 직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직업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직업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눌 것인지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직과 관련된 직업의 경우, 이를 '학교선생님' 하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유치원교사, 국민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대학교수 등과 같이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표적인 직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과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요인분석을 통해 몇 가지 직업군으로 나눈 후, 각 직업군에서 남녀 또는 성역할유형간의 지각차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례수가 없었기 때문에(사례수가 직업수의 2배에 불과함) 단순히 직업간의 비교만을 하였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특히 오랫동안 성인의 머리속에 뿌리박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성인의 직업에 대한 사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저학년에서 이미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Stockard와 McGee(1990)가 국민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직업특성(중요성, 난이도, 감독책임, 소득)보다 아이들의 성별이 직업선호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로부터의 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Fitzpatrick과 Silverman(1989)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여성 분야가 아닌 공학전공에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다른 인문과학전공의 여학생들에 비해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경력에 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남성직업에, 남성들이 여성직업에 스스로 많이 진출함으로써 직업에서 남녀 구성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노력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월간리쿠르트(1995). 리서치/전국 대학생 인기직업 순위. 월간리쿠르트 95년 3월, 50-53.
- 조은, 조순경 (1994).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의 실태와 극복방안-공공부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여성회의 발표논문.
- Barett, N. (1987). Women and the economy. In S. E. Rix (Ed.), *The American woman: 1987-1988. A report in depth* (pp. 100-149).

- New York: Norton.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Fitzpatrick, J. L., & Silverman, T. (1989). Women's selection of careers in engineering: Do traditional-nontraditional differences still exis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266-278.
- Holland, J. L. (1985).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hinar, E. H. (1975). Sexual stereotypes of occup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 99-111.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 Stockard, J., & McGee, J. (1990). Children's occupational preferences: the influence of sex and perception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287-303.
- Strong, E. K., Jr., Hansen, J. C., & Campbell, D. P. (1985). *Strong interes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White, M. J., Kruczek, T. A., Brown, M. T., & White, G. (1989).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289-298.

1차 접수 : 1995. 10. 20

수정본 접수: 1995. 11. 25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Type, and culture

Jin 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strongly Korean college students hold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Stereotype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and culture were also examined. With a 7-point scale, college students rated the 100 occup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persons in these occupations contained masculine or feminine traits. Overall, the most masculine occupation was military soldier and the most feminine occupation was nurse. Women had higher scores than men. This suggests that women perceived masculine occupations as having less masculine traits and feminine occupations as having more feminine traits. Stereotype differences were also found within a sex-role type category. Feminine-typed students perceived masculine occupations as having more masculine traits and feminine occupations as having less feminine traits. Finally, Korean college students had stronger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than American college students. Especially,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ived traditional masculine occupations as having more masculine traits. The plausible reasons of the above results were discussed. The problems with this study and a number of ways to reduce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were also discussed.